

하나님 사랑과 권능의 증거

무안 앞바다의 짙물이 권능의 기도로 단물이 된 '무안단물'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와 18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축하공연 소식.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면 이 세상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지 못할 것이 없다.

우리는 무안단물 마니아~

백내장, 탈모, 피부염 등 치료는 물론 악한 영이 떠나고 영태의 축복까지, 무안단물로 권능을 체험한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하나님 권능,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체험케 하는 무안단물의 탄생에 대해 무안만민교회 담임 김명술 목사를 통해 들어본다.

만민뉴스

제828호 2018년 3월 4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무안단물, 성경 역사의 재현입니다!”

만민을 위한 선물, 권능의 무안단물 18주년을 맞아

지난 3월 1일 오전 11시,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 무안만민교회에서 권능의 무안단물 18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축하공연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강사 이희선 목사(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는 ‘사랑의 선물’(시 62:1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이정호 장로(GCN방송 사장)의 축사, 그리고 예능위원회 소속 권능팀과 호남지방연합팀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또한 많은 주의 종과 성도들을 비롯해 무안군 및 해제면 기관, 단체장 등 내빈들과 주민들이 자리를 함께하여 축하해 주었다.

약 3,500년 전 성경의 역사 재현, 미국 FDA에서 안전성과 우수성 확인

성경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 광야에서 물이 절실히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도록 역사하신 사건이 나온다(출 15:25). 이처럼 인생들의 목마름을 안타까이 여기시며 창조주의 권능을 베풀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증거를 보이셨다.

2000년 3월 5일, 식수문제로 고통받던 무안만민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 앞 바닷가의 짙물을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기도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꾸어 주신 것이다(관련기사 4면).

이는 2007년과 201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7종의 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우수성이 확인되었으며, 미네랄이 풍부하며 칼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샘물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추가 수질 검사를 통해 미국 수출음료 자격을 획득했고, 2013년에는 미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마쳤다.

한편, 우리 교회는 해수어(바닷고기)와 담수어(민물고기)가 공존하는 무안단물수족관을 운영하여 국내외 많은 성도가 관람하고 있다.

지난 18년 동안, 전 세계에서 교단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이 무안단물을 믿음으로 활용할 때 갖가지 질병을 치료 받았으며, 쌍꺼풀이 생기고 동식물이 잘 자라



고 마음의 소원까지 응답받는 등 갖가지 희한한 일들을 체험하였다(관련기사 3면).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담긴 무안단물에 믿음으로 침수함으로 치료는 물론 신기한 영의 세계를 체험함으로 무안단물터는 전 세계 순례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성지가 되었다.

각종 질병이 치료되고 영의 세계를 체험케 하는 등 무수한 성령의 역사 나타나

인도의 슈만 성도(21세)는 남편이 악한 영에 의해 발작한 뒤 의식을 잃어 무안단물을 뿌리자 순간 남편의 의식이 돌아왔다. 이후 남편은 순한 양처럼 변해 그녀와 함께 교회에 다니고 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불구가 된 뒤로 성격이 포악하게 변한 딸을 위해 기도하던 필리핀의 에딘 티우 성도(53세)는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딸에게 무안단물을 뿌려줄 때마다 잠잠케 되는 역사를 체험했다.

인도네시아의 리마 시호팡 쿠쏘이 목사(68세)는 “무안단물터에서 일행들과 함께 하늘을 볼 때 태양 빛이 십자가 형태로 보이더니 ‘너는 치료받았다’라는 음성이 강하게 세 번 들렸습니다. 그 뒤 무안단물에 일곱 번 침수한 후 당뇨병은 물론 합병증까지 치료받았습니다.”라고 간증했다.

러시아의 엘레나 리트비나 집사(57세)는 “무안단물에 침수한 뒤 고질적인 두통이 싹 사라졌을 뿐 아니라 그림에 문외한이던 제가 화가처럼 그림을 아주 잘 그리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뇌의 영역 중 창의력과 예술 활동을 주관하는 뇌세포가 살아난 것입니다.”라며 참으로 놀라운 간증을 전했다.

박정자 집사(57세)는 무안단물에 침수한 뒤 ‘뿡!’ 소리와 함께 2년 된 오른쪽 귀의 이명 증세가 사라졌으며, 무안단물을 뿌린 뒤 심한 난시와 그로 인한 두통까지 치료받았다.

무안단물 탄생부터 함께해 온 무안만민교회 김은주 권사(53세)는 “전 세계에서 무안단물터를 방문한 분들은 인종과 문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한결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고 고백하십니다.”라고 전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 (히브리서 11:17~19)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독립하게 하십니다(창 12:1).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연단의 시작과 함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시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시지요(창 12:2~3).

아브람은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었기에 어떤 생각도 동원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길을 떠났습니다(히 11:8).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믿었기에 아무 미련 없이 이전의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화복(禍福)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람이 고향을 떠난 지 얼마 후 애굽으로 이주하였는데,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 사래를 빼앗기는 일이 생겼습니다(창 12:14~15). 이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는 사래를 다시 돌려보냅니다(창 12:17~20).

잠시 마음 고생은 했으나 아브람은 바로에게 받은 가족과 은, 금으로 인해 소유가 풍부해지지요. 이 일이 오히려 영육간에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아브람의 믿음은 더해졌고, 더욱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람이 축복을 받아 점점 부유해지자 그와 함께한 조카 롯도 소유가 많아져서 마침내 함께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까지 생기자 아브람은 롯에게 나를 떠나되 더 좋은 곳을 취하라고 양보합니다(창 13:8~9). 이때 조카 롯은 물이 넉넉한 더 좋은 땅을 택해 아브람에게서 떠나지요.

그러면 아브람이 손위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조카에게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람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선을 좇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

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 하시며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창 13:14~17). 축복의 관건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시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3) 생사(生死)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모든 생명의 주관자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증거를 얻기 원하셨고, 믿음을 확증시켜 만 천하에 드러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아브람이 99세가 되자 아브람(큰 자)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여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을 말씀하시며, 사래에게도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시지요. 그리고 다음 해 이맘 때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고, 마침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롬 4:18~22).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음으로 나이 들어 죽은 것 같은 자기와 사래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잉태된 사실 앞에 정녕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믿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창 22:2). 여러 차례 하늘의 못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무수히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씨가 바로 이삭인데 그를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갑니다. 그 마음에는 조금도 슬픔이나 원망 같은 것이 없었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데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칼을 잡아 죽이려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

노라”(창 22:12)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설령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살리실 것을 온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히 11:17~19).

2. 온전한 믿음의 행함으로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창 24:1).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구원 얻은 영혼들이 머무는 율음부를 관장하는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 받아 감당하였습니다(눅 16:22). 이 밖에도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이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 드린 결과였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 창조주 하나님의 벗이 되는 영적인 축복은 물론 건강의 축복도 받아 장수하였습니다.

그는 이삭을 낳은 후에도 여섯 명의 아들을 더 낳는 회춘의 복까지 받았으며 물질의 축복도 넘쳐났지요. 하나님을 정녕 믿고 사랑한다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여 범사에 복을 받으며 만사형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사람의 생각을 동원치 않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기쁘게 여기시며 큰 축복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을 입증해 보임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의 행함을 보여 영육간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까요?

1.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

1)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약 4천 년 전 사람으로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며, 아내 사래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가족을 데리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중,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합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는 물론, 하란도 우상 숭배가 성행하여 데라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분위기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마저 물들지 않도록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떠나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 리 은 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무안단물을 뿌리니 백내장이 치료되고 머리술도 많아져 ...”
 정태성 집사 | 75세, 춘천만민교회

저는 백내장으로 눈이 침침해 책을 읽는 것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무안단물을 눈에 뿌린 뒤 눈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아 진찰해 보니 백내장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예전에 위 절제 수술을 받아 늘 소화가 안 됐는데 매일 무안단물을 마신 뒤에는 이 증세가 사라졌지요. 탈모되어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 있었는데, 무안단물을 뿌린 지 한 달 만에 새 머리카락이 나오면서 머리술이 이전보다 풍성해졌습니다.

한 번은 유리컵을 들고 가다가 넘어져 유리 조각이 왼쪽 손바닥에 박혀 신경과 혈관, 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100%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무안단물을 수시로 뿌려주니 전혀 통증도 못 느꼈고 상처도 빨리 아물었으며 손 감각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작년에는 손등의 심한 피부염도 단물로 치료받았습니다. 무안단물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트라이시클 바퀴가 아들의 다리 위로 지나갔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자넷 비사이스 성도 | 38세, 필리핀 까비떼만민교회

작년 9월, 일곱 살 아들이 집 앞에서 놀다가 트라이시클(오토바이를 개조해 만든 삼륜자동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의 오른쪽 다리 위로 바퀴가 지나가는 큰 사고였지요. 그런데 아들은 살짝 상처만 났을 뿐 전혀 통증이 없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아무 이상이 없는 아들을 보며 너무나 놀라워했지요.

저는 곧바로 무안단물을 아이의 다리에 발라주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 트라이시클 바퀴가 지나갔는데도 뼈 하나 다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이후로도 무안단물만 발라줬는데 멍든 부분이 사라지고 어떤 후유증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들이 글씨 쓰는 것을 아주 싫어해서 믿음으로 무안단물을 손가락에 뿌려주었더니 글씨 쓰는 것도 싫어하지 않는 신기한 체험도 하였습니다.





“40년이 넘은 심각한 냉대하증을 치료받았습니다”
 유영숙 집사 | 56세, 3대대 31교구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냉대하 증세가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한의원에 데려가서 한약도 지어주시고 냉대하에 효험이 있다는 육모초도 다려 먹이셨지만 효과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저는 아침저녁으로 속옷을 갈아입어야만 했고 균으로 인해 속옷이 쉽게 구멍나기도 하였습니다. 만성이 되어 버리니 우리 교회에 출석한 뒤에도 치료받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았지요.

그런데 2014년 봄, 증세가 더욱 심해져 무안단물을 서너 번 뿌렸더니 갑자기 하혈이 시작되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하혈을 너무 많이 해서 진료할 수 없다며 멈춘 뒤 다시 보자고 하였습니다. 며칠 후 하혈이 멈추었습니다. 그 뒤 화장실에 갔는데 놀랍게도 속옷이 깨끗했고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더욱이 제가 40년 넘게 고통받던 냉대하증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보며 언니도 주님을 영접하여 신앙생활을 하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악한 영이 나가고 잉태되는 등 무안단물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케발 풀 목사 | 32세, 인도 차그란교회

작년 9월, 만민을 알게 되면서 저는 인도 델리만민교회에서 무안단물을 조금 얻어와 성도들에게 뿌려주며 마시게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무스칸 성도(사진 1)가 갑자기 뒤로 넘어졌다가 깨어나더니 마치 압력술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갑갑함을 느껴왔는데, 무안단물을 뿌리니 자신의 몸에서 뭔가 빠져 나가면서 몸이 가볍고 두통과 압박감도 사라졌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한 상기타 버마 성도(사진 2, 왼쪽)는 결혼한 지 2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무안단물을 마시고 며칠 후 잉태가 되었으며, 그녀의 시어머니(오른쪽)도 무안단물로 악한 영이 나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적의 ‘무안단물’에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

‘무안단물’은 전 세계 만민 성도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성도들이 가정상비약처럼 사용하거나 생활기수리 등 각 분야에서 믿음으로 지혜롭게 활용하여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첸나이의 제아메리 성도(51세, 사진 1)는 2016년, 재배한 땅콩의 알이 매우 작고 수확이 좋지 않아 2017년에는 파종할 땅콩에 무안단물을 뿌리고 기도

한 후 재배한 결과, 알이 매우 큰 땅콩을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었다. 그녀는 집의 암소가 난산하여 송아지가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무안단물을 소에게 뿌리고 마시움으로 정상 분만케 한 체험도 있다.

정기현 집사(54세, 사진 2)는 오른손 약지에 생긴 사마귀에 무안단물을 매일 뿌리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자동응답서비스(ARS) 환자기도를 받아 그 크기가 점점 줄어들더니 깨끗이 사라졌다.

김효덕 집사(40세, 사진 3)는 무안단물을 양쪽 눈에 뿌려 진한 쌍꺼풀이 생겼다. 그런가 하면 올 겨울 한파로 하수구가 얼어 난감한 일주일을 보내야 했던 도영화 집사(46세)는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를 받고 무안단물을 붓자 놀랍게도 하수구가 펴 뚫렸다. 이 외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의 양금화 집사(60세)는 고장 난 컴퓨터에, 장유정 집사(74세)는 TV에, 최다선 아동(11세)은 휴대폰에 무안단물을 뿌려 고쳤다고 간증했다.





“하나님의 권능은 바다의 짠물도 단물로 바꿨습니다!”

김명술 목사 (무안만민교회 담임)

1997년 4월,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라남도 무안에 파송되어 무안만민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당시에도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났기에 교회는 부흥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 성도가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던 중, '신우수양관'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7천여 평의 대지 위에 각종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을 뿐 아니라 드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어 전경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무일푼이었지만 하나님 뜻이라면 반드시 이뤄진다는 믿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금식하며 매일 밤 기도하니 기적적으로 계약금이 마련되어 성전을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역사를 믿고 전 성도와 믿음으로 행군하니

1999년 2월, 성전 이전 후 뜻하지 않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바로 식수 문제였지요. 그곳은 본래 무인도라 간척사업을 통해 육지와 연결했기에 식수가 없을 뿐더러 지하수를 파도 먹을 수 없는 짠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 km쯤 떨어진 이웃 동네에서 호스를 연결해 식수를 공급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잦은 시설 공사로 재정 손실과 번거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옆 동산에는 이전 수양관 주인이 파 놓은 지하수가 있었지만 짜다 못해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고심하며 기도하던 어느 날, 성도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하던 중 전광석화처럼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니 이러한 역사는 지금도 가능한 일이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당회장을 통해 수많은 권능의 역사를 보이시지 않았는가!

당회장님이시라면 얼마든지 짠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더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과 함께 매일 밤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인사를 나눌 때에도 “짠물이 단물 되었습니다!”라며 믿음의 고백을 주고받았고, 찬양을 할 때도 “짠물이 단물 되어 기적이 나타났네!”라고 개사하여 부르며 믿음의 행군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갈 때마다 무안만민교회의 어려운 물 사정을 당회장님께 말씀드리며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바다의 짠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

그러던 2000년 2월, 당회장님께서 6주 산상 기도를 떠나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와 성도들은 당회장님의 산상 기도가 마치는 날까지 릴레이 금식을 하며 당회장님을 위해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산상 기도 첫날부터 10일간 무안만민교회 상공에 밤낮으로 무지개가 나타나는 너무나 신기하고 황홀한 광경을 목격하며 필시 축복의 징조임을 확신하며 기대에 찼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열흘간의 1차 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3월 3일, 저는 서울로 올라가 만민중앙교회에서 금요철야예배를 드린 뒤 당회장님께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전도대회를 놓고 기도를 받았습다.

그런데 전도대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당회장님께서 무안의 짠물이 단물이 되게 해 주시라는 기도를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기뻐 “아멘!” 하며 벽차 오르는 감격을 안고 무안에 내려왔습니다.

3월 5일, 주일 대예배 광고시간에 “당회장님께서 짠물이 단물 되게 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셨으니 이미 짠물은

단물이 되었습니다.”라고 단에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전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요. 대예배가 마쳐지자마자 성도들은 지하수 샘이 있는 동산으로 올라가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 기도를 올린 뒤, 지하수 샘에 다가갔습니다.



시선은 온통 지하수 밸브에 모아지고 잠시 긴장감이 돌았지요. 밸브를 틀자 물이 팔팔 쏟아졌습니다. 성도들은 일제히 두 손에 물을 받아 물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목사님, 물맛이 변했어요!” 여기저기서 “와!” 하는 탄성과 함께 박수를 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를 체험하는 ‘무안단물터’

축복은 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무안단물을 믿음으로 마시고 바르며 활용하는 성도들마다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고, 쌍꺼풀이 생기며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해외 성도들도 단물을 공급받아 신기한 역사를 체험함으로써 저희 무안만민교회는 어느덧 ‘권능의 무안단물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를 체험하길 사모하는 전 세계인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신 응답이요, 믿음으로 얻은 사랑의 선물입니다. 지난 18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약 3,500년 전 성경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현실로 이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전 성도가 뜨겁게 한 마음이 되어 믿음의 행군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무수한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끄시며 축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리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동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동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감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학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성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련빌D ☎031)905-2419, 010-2276-1014